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8/29	정락곤	32	남	광주	9/5	장현	21	남	신촌	9/19	김희	22	남	신촌
"	김점래	20	여	군산	"	소명환	20	남	인촌	"	배희	36	여	인촌
9/5	이주환	29	남	동부	"	백달영	26	남	늑번	"	이성숙	20	여	늑번
"	신진실	23	여	동부	"	신용인	22	남	서부	"	박우	26	남	동부
"	이지영	27	남	영등포	"	김종철	21	남	영등포	"	손기	18	남	남부
"	이재연	52	여	영등포	"	김경오	17	남	목포	"	조성	20	남	남부
"	이재량	19	여	영등포	"	김오	33	남	목포	"	신철	18	남	남부
"	이재연	18	여	영등포	"	정장	27	남	목포	"	김희	17	여	목포
"	최은화	22	여	동부	"	박창	28	남	목포	9/26	왕상	18	남	늑번
"	김수호	28	남	성북	"	박자	25	여	목포	"	주은	18	여	늑번
"	김유희	40	남	성북	"	박은	16	여	목포	"	이광	31	남	늑번
"	이정현	10	남	성북	"	오민	21	남	전주	9/29	이경	16	남	늑번
"	이정현	39	여	성북	"	차이	19	남	전주	"	이은	23	남	늑번
"	정혜순	24	여	성북	"	이창	17	남	전주	"	이세	17	여	늑번
"	정혜순	14	여	성북	9/12	송서	19	남	마산	"	강김	21	남	늑번
"	정혜순	12	남	성북	"	서성	28	남	마산	"	이김	24	남	늑번
"	정혜순	27	남	신촌	9/19	신희	25	남	청산	"	이김	14	남	늑번
"	정혜순	20	남	신촌	"	최희	19	여	청산	9/29	고김	18	남	늑번

당신은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셨습니까?

교재에 관한 문의 :

각지부장, 번역 출판부

신권회 :

복음 교리 150, 아론 청소년반 300,
성인반 250.

주일학교 :

우리의 종교생활 150,
말일성도란? 300, 주님의 교회 250,
주님의 발자취 따라 250.
기이한 업적 300,

상향회 :

봉이반 200, 장미-월계 200,
비행사 300, 여행자 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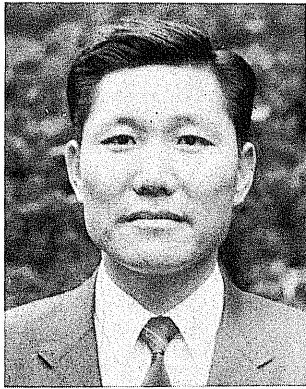
삼청지부

삼청지부의 지부장단이 개편되었다. 지부장 최 옥환 형제는(앞은분)지방부의 역원과 개인의 사업 때문에 교체 한 다면서 제 1 보좌에 서희철(중앙), 제 2 보좌에 장세문(좌), 집행서기에 박응복(우), 기록서기에 김주화 형제의 지지를 물었다.



동중앙 지방부 합동 피크닉

동중앙 지방부가 탄생된 후 첫번 피크닉이 지난 10월 3일 서울 근교 동구릉에서 있었다. 예하 5개지부가 지방부 상향회의 준비로 함께했던 이날 성도들은 여러 놀이를 통해서 동중앙 지방부 성도로서 각별한 형제애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는 150여 성도들이 참가했었다.



녹번지부장에 구 중식 형제

녹번지부장에 구 중식 형제가 지지되었다. 지난 9월 20일 지방부장단에 의해서 지지가 물어진 구 형제는 지부장으로서의 소감을 “교회의 어느 직책보다도 영광스럽다”고 했었다. 부인 홍성옥 자매와의 사이에는 두 공주를 두고 있다. 그는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는 김 과영 형제를 제1보좌에, 문 시우 형제를 제2보좌에, 지부서기에 황 종원 형제를 임명하였다.

동중앙 장로 회장 장 기호 형제로

동중앙 지방부 제일 장로 정원회 회장에 장 기호 형제가 지지되었다. 지난 9월 27일 선교부장단과 서울의 장로들이 함께하여 나누기로 합의하고 동중앙 지방부 장로들에 의해서 지지가 된 장 기호 형제는 지방부 장로 담당 평의원을 겸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는 김 응호, 윤 봉준 형제를 보좌로, 고 천석 형제를 지방부 장로정원회의 서기로 임명하였다.



서중앙 장로 회장 홍 순모 형제로

서중앙 지방부 제일 장로 정원회 회장에 홍 순모 형제가 지지되었다. 중앙 지방부가 기구 확대로 나뉘기 이전부터 장로 정원회들이 끌어 온 그는 정원회 회원들에게 신전 방문을 위하여 저축할 것을 강조해 왔었다.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장로들을 활동 회원으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던 그는 송 정녀 자매와의 사이에 4 공주를 두고 있다.



전주지부 농촌 봉사

전주지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일간 「농촌 계몽대」를 조직하여 전북 임실군 운암면 일대에서 농촌 봉사를 했다. 도지사가 제공하는 선박과 경찰국장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봉사 활동의 지역을 더욱 넓게 잡을 수 있었던 10명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고, 문맹퇴치, 이발, 우물물 소독, 약품 제공 등으로 각지역마다 낙후된 것들을 찾아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었다. 홍 형제는 학교법인 흥범학원의 이사장으로 그동안 외국어 연구소를 열어 많은 후배를 양성한 바 있으며 임실군에 재건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에 취임하여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소망을 이루어 주었었으며 그는 임실군에 계속 임실여자 중학교를 설립 추진중이다.

동중앙 지방부 합동 상향회

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전체 합동 상향회가 지난 9월 24일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청소년 대회때의 공개방송의 테이프를 들고 장기 발표가 있었던 이날 김 지방부장의 말씀도 있었다.

서중앙 지방부 합동 상향회

동중앙 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합동상향회가 지난 10월 28일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교회 본부의 주간지 “처어치 뉴스”에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동모임은 다채롭게 준비되었었다.

마산-지부로 승격

지난 10월 18일 남부 지방부의 마산지역이 지부로 승격되고 지부장에 스키너 장로가 부름 받았다. 그는 김 동우 형제를 제1보좌에, 조 학현 형제를 지부서기에 임명하였다. 마산지부는 5월 7일 상향회를 조직하였었다.

대구-지부대회

대구지부의 지부대회가 지난 10월 24일과 25일에 있었다. 지부장 이 원환 장로와 함께 몇몇일을 밤을 지새며 준비한 이들은 24일의 상향회 대회로 지부의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주일에는 지방부장의 말씀을 들었다.

남부 특별 역원회

10월 18일 남부 지방부는 선교부장단을 모신 가운데 보고서 작성법과 교재의 활용에 관한 특별 역원회를 가졌다. 지도자 양성과 교사 훈련의 일환으로 계획된 동모임은 몇번에 걸쳐 계속된다.

도 형제 특남

서부지부의 도 일부 형제는 지난 9월 23일 특남하였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는 요즈음 즐거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산모 한명자 자매와 유아는 대단히 건강하다고 한다.

인천지부 이사

인천지부는 지난 9월 30일 한국 은행 인천지점 뒷쪽인 중구 중앙동 4가 8번지 4호로 이사를 했다. 주일학교를 5반으로 분반하고 있는 인천지부의 역원들은 열의에 열의를 더하고 있다.

선교부 선교사 이동

최근 선교부는 선교부장의 행정보조로 마호니장로, 선교사 보조로 고원, 기록서기에 아더, 재정서기에 부라이너, 개인비서겸 잡지 책임자에 부론델, 판매및 우편에 호 장로를 임명하였다.



헤스롭형제 방한

교회신문의 편집장인 헤스롭 형제가 부인을 동반하고 지난 10월 25일 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성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목적지인 일본을 향해 29일 오전 떠났다.



선교사 대회

한국 선교부 예하의 모든 선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선교사 대회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설악산에서 있었다. 선교사 87명과 선교부장단이 함께했던 이 모임은 효율적인 선교방법, 선교사로서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협조, 6시간의 간증회, 관광등으로 계획되었다. 이 모임을 마친 선교사들은 더욱 넘치는 열의를 갖고 전국의 21개 지부 및 지역에서 선교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 관광호텔에서의 기념 촬영

송 형제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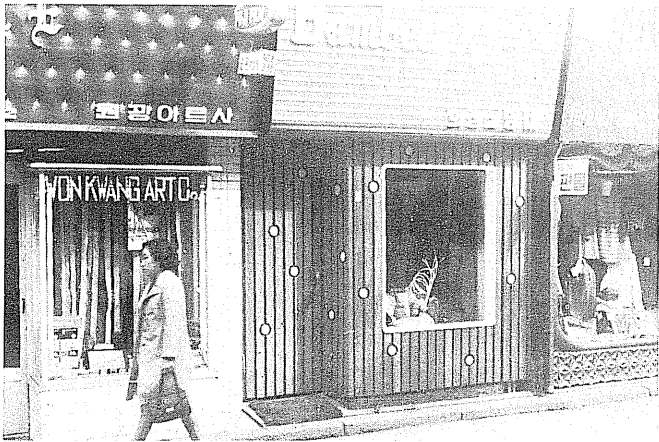
동부지부의 송 정섭 형제와 김 문자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19일 YMCA 예식장에서 이 희승 박사의 주례로 있었다. 송 형제는 2년간의 선교사업을 끝내고 지금은 동중앙 지방부 재정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신 형제 결혼

서부지부의 신 국재 형제와 이 수자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24일 정오 서대문 제일 예식장에서 김 산 형제님의 주례로 있었다. 서부지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 형제는 K. B. S.에 근무중이다.

전형제 결혼

동부지부의 전 종철 형제와 차 영심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5일 서현보 선교부장의 주례로 풍전호텔 예식장에서 있었다. 전형제는 중앙 지방부 서기를 지낸 바 있었으며 그는 교회 번역부에 근무중이다.



장 자매 양장점 경영

삼척지부의 장 혜자 자매는 틈틈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군 김 동길 형제의 도움을 받아 총무로 4가 24번지 10호, 대한극장 건너 골목에 아담한 양장점을 개점하여 성업중이다. 「밤비」라 이름한 장자매는 회원들에게 특별히 봉사하겠다고 했다. 전화는 26-0858이다.

장 형제 결혼

부산지부의 장 병훈 형제와 이 청자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 이 재수 형제님의 주례로 부산지부에서 있었다. 귀환 선교사이며 부산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부산에서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방 형제 결혼

부산 동구지부의 방 춘성 형제와 배미순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지부에서 배 영천 형제님의 주례로 있었다. 남부 지방부 서기로 봉사하고 있는 방 형제는 군판계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